

# 정례브리핑

2020.7.20(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10분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미래통합당 대표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며, 7월 23일 목요일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평화경제특구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인영 후보자께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것으로 보도가 된 평양종합병원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시면서, 이처럼 북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남북협력을 확장해 나가겠다, 라는 방침을 밝히셨고 특히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구체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을 제안하거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밝히신 내용은 조금, 이번 주에, 이따 개최되는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통일부 차원의 검토는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검토라고 하는 점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방식,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닙니다.

**<질문>**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요. 북한의 배상요구가 어렵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배상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말씀하신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및 후보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보도가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 중에 이인영 의원이 국회와 선관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곧 반납할 예정이라는 해명까지 담겨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후보자 측의 입장,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후보자 측의 입장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후보자 측에서 앞으로 청문회에서 아마 소상히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후보자의 자녀가 2016년 4월에 맥주를 팔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맥주제조등록증은 그 이후인 10월에 발급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준비팀에서 파악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파악할 예정이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네, 이와 관련 청문준비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